
		보 도 자 료		<div>2025년</div> <div>수도권매립지 종료</div> <div> 인천광역시</div>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12일(금) 총 3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축산위생과장 라도경 • 담당자 정윤정	☎440-5571 ☎440-5572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
철저한 축산물 검사
- 비대면 축산물 소비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료축산물 검사 강화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되고 밀키트와 같은 새로운 식품유형이 소비되는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료 축산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인천에는 소·돼지 도축장 1개소와 가금류 도축장 1개소, 집유업 1개소를 비롯하여 축산물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·보관업·운반업 등 총 4,579개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,430여개의 축산농가가 분포하고 있다.
- 식육이 생산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 검사관들이 상주하며 살아있는 가축의 생체검사를 시작으로 해체 검사,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식육을 전량 폐기하고

도축과정에서 오염을 예방하는 등 도축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.

- 도축이 끝난 식육에 대해서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, 도축 작업의 위생 개선을 위하여 소고기 도체의 부위별 오염도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
-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물용의약품, 호르몬제,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.
- 식육에 대해 180종의 잔류물질 검사 이외에도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과 산란계에 대한 살충제 검사, 그리고 집유장 원유에 대한 71종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와 위생검사 등 원료 축산물 전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여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.
- 김경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“언택트 트렌드로 인해 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.”며 “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감시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

도축검사(지육검사)



잔류물질(정량검사) 검사



잔류물질(신속분석법) 검사